

## 청소년 약물사용과 비행과의 관계 및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재미 한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ce Use and Delinquent Behavior,  
Risk and Protective Factors : Korean-American Adolescents in USA\*

한영옥(Young Ok Han)<sup>1)</sup>

### ABSTRACT

The subjects for this study on delinquent behavior, substance use and risk/protective factors consisted of 301 Korean-American students in grades 6 to 12. Findings were that (1) the delinquent behavior rate of adolescents using alcohol, tobacco or other substances was higher than that of non-using adolescents, increasing the odds of delinquent behavior from 3 to 45 times. (2) The probability of delinquents in the substance users group was higher by 7 to 44 times than in the non-users group. (3) The relationship with delinquent behavior of risk factors and substance use was much stronger than the relationship with delinquent behavior of protective factors and substance use. (4) The strongest predictor of delinquent behavior or substance use was the peer-individual domain.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s), 비행행동(Delinquent Behavior), 약물사용(Substance Use),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 위험요인(Risk Factors).

### I. 서론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비행 및 약물사용은 여러 가지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심

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따르면, 약물과 알콜남용으로 인해 매년 120,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나 기타 다른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sup>1)</sup> 서울여자대학교 교양교육부

**Corresponding Author** : Young Ok Han, Seoul Women's University 126 Kongnung-2Dong Nowon-Gu Seoul 139-774, Korea

E-mail : hany@swu.ac.kr

사고, 타살과 자살이 청소년기 사망의 73%를 차지하고 있다(Morbidity & Mortality Weekly Report[MMWR], 1998). 1997년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에 의하면 이런 사망들은 종종 음주나 불법 약물남용과 같은 건강위험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립마약규제정책국이 12세 이상 청소년 약 7만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약물남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미난인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률이 아시아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Wright, 2002). 이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한번 이상 마리화나 등 불법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는 한인 청소년 숫자는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의 9.5%로 일본(8.3%) 베트남(6.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약물복용 실태를 인종별로 보면 아메리칸 인디언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푸에르토리코(16.3%) 흑인(12%) 백인(11.3%), 멕시코계(10.3%) 한인(9.5%) 순으로 밝혀져 한인 청소년들의 약물복용 상태가 비교적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비행은 강력범죄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문화관광부, 2004) 전체 범죄에서 청소년 비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문화관광부, 2002). 한편 청소년의 음주와 약물 사용의 문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미 남용되고 있는 약물 또한 다양하며, 더욱이 약물 사용의 시작 나이가 점점 더 어려져 10세 이전에 약물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는 등 약물사용의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기정, 2000; 청소년학회, 1997). 청소년기의 약물복용은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그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등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또한 약물 남용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법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 있어(김현수, 1998; Kaplan & Sadock, 1998)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비행 및 범죄 행위와 알코올 및 약물사용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민병근·김현수, 1978; Dawkins, 1997; Kaplan & Sadock, 1998; Wiczorek, Welte, & Abel, 1990). 예를 들어 약물남용자가 폭력적인 범법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Anglin & Speeckart, 1988), 알코올 남용이 타살이나 폭력범죄의 가장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Dawkins & Dawkins, 1983; Wiczorek, Welte, & Abel, 1990). 그 밖의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기 비행은 자살행동(Borowsky, Ireland, & Resnick, 2001; Lester, 1999), 성적 공격행동(Borowsky, Hogan, & Ireland, 1997), 약물남용(Brener, Simon, Krug, & Lowery, 1999; Elickson, Saner, & McGuigan, 1997; Goldstein, 1985; Grungum, Basen-Engquist, & Pandey, 1998; Saner & Elleckson, 1996)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행행동과 약물사용간의 강한 정적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를 토대로 해볼 때 음주 및 약물사용의 증가는 비행행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반대로 비행행동의 증가는 음주 및 약물사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비행행동과 약물사용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비행행동이나 약물사용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개인, 가족, 또래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약물남용과 비행행동 모두에 대한 예방을 병행하고 있다(Botvin, Baker, Dusenbury, Botvin, &

Diaz, 1995; Donaldson, Graham, Hasen, & 1994; 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그런가 하면 약물남용과 비행행동 모두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단지 약물남용에만 관련된 요인도 있고(Dembo, Williams, Wothke, Schmeider, Cetreu, Berry, & Wish, 1992; White, 1992), 비행행동에만 관련된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알코올과 기타 약물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Hawkins, Catalano, & Miller(1992)는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약물사용, 비행행동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행동양상이 조사되어야 하며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들은 환경의 다양한 여러 영역들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은 4개의 기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즉 지역사회요인(예 : 약물에 대한 사회의 법과 기준들), 가족요인(예 : 가족 간 애착의 수준), 학교요인(예 : 학업실패), 개인 및 또래요인(예 : 약물의 시작 연령과 친구의 영향) 등이다. Catalano(2001)는 “청소년 발달을 긍정적으로 촉진시키고 문제행동을 막기 위해서 긍정적 행동은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은 감소시키는 이 요인들을 먼저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호요인들은 약물사용 및 비행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탄력성, 강한 가족 간의 유대, 지지적인 가족 환경, 문제해결기술,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 등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보호요인들이다(Hawkins et al., 1992, 1997; Kandel, Yamaguchi, & Chen, 1992; Newcomb & Felix-Ortiz, 1992). Hawkins 등(1992)은 사회발달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

델은 위의 입증된 보호요인이 약물남용이나 비행행동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으로서 가족, 학교, 또래간의 유대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호요인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존재하며 보호요인의 수가 더 많을수록 보호요인의 효과는 더 크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문제는 크게 다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재미 한인 중고등학생들의 약물사용과 비행행동과의 관계를 각각의 경험율과 Odd ratio를 토대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비행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어떻게 다른지 관련요인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재미 한인 학생들의 약물사용과 비행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약물사용 및 비행행동과 관련된 각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평가(공통점과 차이점)함으로써 현재 유학하고 있거나 할 예정에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약물사용 및 비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비행 및 폭력행동의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특정 소수민족에 대한 비행 및 폭력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가 문화적인 배경을 토대로 한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재미 한인 청소년 6학년부터 1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이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등 4개주의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 6학년에서 1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130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21부가 수거되었는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1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한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위의 4개 주를 대상으로 삼았고, 먼저 대형교회와 한인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검사에 동의한 곳만을 선택하여 검사지가 배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인 동의 과정(active consent process)을 거쳤는데, 즉 부모의 동의를 얻은 학생들에게만 설문지가 배

포, 실시되었다. 이렇게 능동적인 동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검사지 수거율이 낮았다(약 40%). 설문지는 한인학교와 한인 교회의 교사들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실시기간은 2003년 5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였고,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미국 워싱턴 대학 소재의 사회 발달연구소(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에서 개발한 “비행행동 및 약물사용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라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Hawkins et al., 1997). 이 질문지는 원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미국의 6개주 컨소시엄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1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되어 있어 미국 내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질문지는 크게 3가지 즉, 개인 신상에 대한 척도, 폭력 및 비행행동과 약물사용 척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척도로 나뉘어져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척도에는 지역사회영역, 학교영역, 가족영역, 개인 및 동료영역, 등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요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반대로 보호요인 항목에서의 높은 점수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이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mbach's Alpha)는 .83이었다.

약물사용 척도는 전 생애에 걸쳐 사용한 경험과 지난 한 달간 경험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likert 척도로 ① 전혀 없다, ② 한두 번 했다, ③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한다, ④ 과거에 규칙적으로 했다, ⑤ 현재 규칙적으로 한다로 구

<표 1> 대상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인원수/ 평균	퍼센트/ 표준편차
성 별	남자	160	53.5%
	여자	139	46.2%
출생지	미국	192	63.8%
	한국	108	35.9%
연 령		14.73	1.89
	6학년	31	10.3%
	7학년	35	11.6%
	8학년	30	10.0%
학 년	9학년	56	18.6%
	10학년	70	23.8%
	11학년	46	15.3%
	12학년	11	11.0%
	부모와 동거여부	부 모	256 276

성되어 있다. 약물비사용집단은 한 달간 전혀 경험이 없는, ①로 응답한 응답자로 삼았고, 약물 사용집단은 문항의 ②~⑤ 중 어느 하나를 고른 응답자이다.

한편 비행행동 척도는 폭력행동과 비행행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행동에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상해할 목적으로 공격을 가한 적이 있다’, ‘권총을 소지하고 다닌 적이 있다’가 포함되어 있다. 비행행동으로는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술에 취하거나 취기를 느낀 적이 있다’, ‘학교에 총을 가지고 간 적이 있다’ ‘정학을 받은 적이 있다’, ‘자동차를 훔쳤거나 훔치려고 한 적이 있다’, ‘불법 약물을 판매한 적이 있다’, ‘체포된 적이 있다’, ‘갱에 가입한 적이 있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 9개 문항 중 ‘갱에 가입한 적이 있다(있다/없다)’를 제외한 8개 항목은 지난 1년간 비행행동을 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 1점, 1-2회 있으면 2점, 3-5회는 3점, 6-9회는 4점, 10-19회는 5점, 20-29회는 6점, 30-39회는 7점, 40회 이상은 8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응답자에서 이 비행행동의 평균은 1.18였다. 8개의 비행행동 점수에서 전체 응답자의 상위 9%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비행행동집단으로 삼았으며(26명), 8개 항목 모두에서 비행행동을 전혀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비비행동집단으로 삼았다(241명). 비행행동의 평균점수는 비행집단에서는 3.00이며, 비비행동집단에서는 1.00이다. 두 집단의 비행행동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었다( $t=13.18, p=.000$ ).

### 3. 자료분석

약물 및 비행행동 각각의 경험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약물사용과 비행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약물사용은 음주와 흡연, 기타불법약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기타불법 약물이란 마리화나, 코가인, LSD 또는 흡입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척도들은 각각의 하위영역을 재는 문항들(예 : 학교영역에서 학교 결석을 재는 문항이 18, 22, 23번임)의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구한 후 이 값이 중앙치 이상을 넘으면 위험요인을 갖고 있거나 보호요인을 갖고 있다고 결정한다. 각 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의 약물사용 및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회귀분석에서 구해진 값 odd ratio(OR)가 1이상이면,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이 위험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에 비해 약물사용 또는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말해 주며, 반대로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은 보호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에 비해 약물사용 또는 비행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말한다. 즉, 학교영역의 하위요인중의 하나인 “학교결석”에서 OR 값이 3이라면, 이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학교결석을 재는 문항들의 합에서 중앙치 이상을 얻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약물사용 또는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3배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 III. 결 과

### 1. 약물사용과 비행행동과의 관계

#### 1) 비행행동의 유병률

응답자의 89.2%에서 97%가 지난 1년간 비행행동들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40회 이상 비행행동들을 한 적이 있다고

〈표 2〉 비행행동의 유병률(%)

	전혀 없음	1-2	3-5	6-9	10-19	20-29	30-39	40 이상
정 학	91.6%	4.7%	2.0%	0.3%				1.4%
권총소지	96.6%	1.3%	0.7%					1.3%
불법약물판매	95.0%	1.3%	1.3%	0.3%	0.3%	0.3%		1.3%
자동차 훔침	95.6%	2.0%		0.3%	0.3%	0.3%		1.3%
체 포	96.0%	1.03%	0.3%	0.7%	0.3%	0.3%		1.3%
상해행동	89.2%	4.7%	2.4%	1.0%	0.3%	0.3%	0.3%	1.7%
학교에서 술 취함	91.7%	3.7%			0.7%		0.3%	2.4%
학교에 총 가지고 다님	97.0%	0.3%	0.3%	0.7%				1.7%

보고한 학생들이 1.3%에서 2.4%까지 나타나고 있어 비록 소수이지만 한인 청소년들이 심각한 비행행동을 하고 그 빈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비행행동의 유병률은 <표 2>와 같다.

## 2) 음주, 흡연 및 약물사용에 따른 비행행동의 경험율

지난 한 달간 음주 및 흡연 약물사용에 따른 비행행동의 경험율과 odd ratio가 <표 3>~<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음주의 경우 음주집단이 비음주집단에 비해 모든 비행행동 항목에서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표 3>. 지난 한 달간 알코올을 복용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에서 29%가 '상해행동'을 하였다고 보고한데 반해 지

난 한 달간 알코올을 복용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서는 5.9%가 '상해행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비행행동 항목 중 가장 낮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는 '권총소지'와 '학교에서 술 취함'의 비행행동은 음주집단에서는 각각 11.1%, 비음주집단에서는 각각 1.3%와 0.8%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음주집단이 비음주집단에 비해 모든 비행행동 항목에서 각각의 비행행동을 할 위험성은 약 3배에서 14배까지 높았다. 그 중에서 음주집단의 '학교에서 총소지'를 할 가능성은 비음주집단의 가능성 비해 14.4배가 가량 높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은 '체포(12.7배)', '불법약물 판매(12.1배)', '학교에서 총 소지(12배)'이다.

둘째로 지난 한 달간 흡연에 따른 비행행동의

〈표 3〉 음주에 따른 비행행동의 경험율(%) 및 odd ratio

비행행동	전체(N=301)	음주군(n=64)	비음주군(n=234)	비행행동의 odd ratio
정학	8.4	17.4	5.6	3.547**
권총소지	3.4	11.1	1.3	9.583**
불법약물 판매	5	17.5	1.7	12.111***
자동차 절도	4.4	14.3	1.7	9.542***
체포	4	14.3	1.2	12.778***
상해행동	10.8	29.0	5.9	6.923***
학교에서 술취함	7.1	11.1	0.8	12.074**
학교에서 총 소지	3	24.2	2.5	14.437*
갱에 소속	5.8	17.5	2.2	9.51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흡연에 따른 비행행동의 경험율(%) 및 odd ratio

비행행동	흡연군 (n=31)	비흡연군 (n=266)	비행행동의 odd ratio
정학	32.3	5.4	8.469***
권총소지	25.8	0.8	45.739***
불법약물 판매	29.0	2.3	17.659***
자동차 절도	29.0	1.5	26.693***
체포	25.7	1.6	22.696***
상해행동	36.6	7.6	7.092***
학교에서 술취함	36.6	3.8	14.763***
학교에서 총 소지	22.5	0.8	38.354***
갱에 소속	33.3	2.3	21.427***

\*p<.05 \*\*p<.01 \*\*\*p<.001

경험율(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비행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흡연군의 경우 적게는 22%("학교에서 총 소지")에서 많게는 36%("상해행동"과 "학교에서 술 취함")의 비행행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비흡연군의 비행행동 경험율은 "상해행동(7.6%)"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5%미만의 낮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약 7배에서 45배까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한달 간 흡연을 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권총소지"를 할 가능성이 45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 총 소지"의 위험성은 38배, "자동차 절도"의 위험성은 26배 높다.

셋째로 지난 한 달간 기타불법약물 사용에 따른 비행행동 경험율을 살펴보면 약물사용군이 비사용군에 비해 전 비행항목에서 비행행동을 훨씬 더 자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약물사용군은 9개의 비행항목에서 약 27.2%~47.4%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비사용군은 8.1%~1.2%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

<표 5> 기타불법약물 사용에 따른 비행행동의 경험율(%) 및 odd ratio

비행행동	흡연군 (n=22)	비흡연군 (n=276)	비행행동의 odd ratio
정학	36.2	5.9	9.143***
권총소지	27.2	1.5	25.312***
불법약물 판매	45.3	1.9	44.833***
자동차 절도	36.2	1.9	30.743***
체포	31.7	1.9	25.107***
상해행동	43.0	8.1	8.591***
학교에서 술취함	47.4	4.0	21.736***
학교에서 총 소지	27.3	1.2	33.875***
갱에 소속	31.8	3.3	13.585***

\*p<.05 \*\*p<.01 \*\*\*p<.001

난 한 달간 불법약물을 사용하였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9개의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약 7배에서 45배까지 높다. 약물사용군의 "불법약물판매" 가능성은 비약물사용군의 그것에 비해 약 45배 높다. "학교에서의 총소지(34배)", "자동차 절도(31배)", "권총소지(25배)" 순이다.

### 3) 비행행동에 따른 약물사용의 경험율

비행행동에 따른 약물사용의 경험율 및 odd ratio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약물사용도 함께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데, 약물의 종류에 따라 약 24%~56%까지 지난 한 달간 약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코올의 경우를 보면 비행행동 집단의 56%가 지난 한 달간 음주를 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행행동집단의 약물사용율은 흡연 48%, 마리화나 44%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비행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의 약물사용율은 1.3%~15%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음주(15%)와 흡연(5.4%)은 비교적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는 바 비행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음주는 보

〈표 6〉 비행경험에 따른 약물사용의 경험율(%) 및 odd ratio

약 물	전체(N=301)	음주군(n=26)	비비행군(n=241)	약물사용의 odd ratio
알코올	21.5	56	1.5	7.212**
흡연	10.4	48	5.4	16.118**
마리화나	7.1	44	3.7	20.167***
LSD	1.7	24	1.7	18.632***
Glue	6.4	36	2.5	22.031***
암페타민	4.7	40	1.7	39.500***
데비줄	3.4	28	1.3	30.593***
코카인	3.7	28	1.7	22.944***
기타불법약물	7.3	40	4.2	15.333***

\* $p < .05$  \*\* $p < .01$  \*\*\* $p < .001$ 

다 흔하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할 위험성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위험성에 비해 7배~39배까지 높다. 암페타민의 위험성이 가장 높았는데, 즉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암페타민을 사용할 가능성은 39배 높았다. 비행행동군의 약물사용의 위험성은 데비줄(300배), 코카인(22배), 마리화나(20배)순으로 나타났다.

## 2. 약물사용 및 비행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표 7>~<표 10>은 한인 청소년의 약물사용 또는 비행행동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odds ratio로 제시한 것이다. 즉, 대상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약물사용 또는 비행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예언이 odds ratio 값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약물사용 또는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사회 영역

먼저 지역사회 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

인과 지난 한 달간 알코올 복용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 위험요인의 알코올에 대한 영향력은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 그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위험요인은 “약물사용 규준에 대한 호의성”이었다. 즉 이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음주를 할 가능성은 5.9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약물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지각”(3.5배),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인 호의성”(2.5배)과 “지역사회 비조직화”(3.4배)와의 관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호요인에서는 “집회 및 클럽활동의 기회”를 보호요인으로 갖고 있는 청소년의 알코올을 복용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1.8배 높다고 할 수 있다. “집회 및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요인은 알코올을 복용할 가능성을 낮추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로 기타불법약물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지각”(10.2배), “약물사용 규준에 대한 호의성(9.3배)”, “지역사회 비조직화”(3.9배),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인 호의성”(2.4배)과의 관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호요인의 경우도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표 7> 지역사회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odd ratio)

지역사회영역	지난 한달동안의 약물사용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
<b>위험요인</b>			
낮은 이웃애착	1.426	1.631	1.573
지역사회 비조직화	3.412*	3.966*	3.437*
개인의 변화 및 이동	1.441	2.780	1.713
지역사회의 변화 및 이동	1.086	1.566	1.394
약물사용의 규준에 대한 호의성	5.923*	5.347*	12.253***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인 호의성	2.570*	2.496*	2.410*
약물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지각	3.592*	10.279*	4.678**
<b>보호요인</b>			
집회 및 클럽활동의 기회	1.887*	2.516*	.488
집회 및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	1.052	1.962	.788

\* $p < .05$  \*\* $p < .01$  \*\*\* $p < .001$

“집회 및 클럽활동의 기회(2.5배)” 요인이 지난 한 달간 기타불법약물의 사용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셋째로, 지역사회요인의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약물사용 규준에 대한 호의성(12배)”,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인 호의성(2.4배)”, “약물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지각”(4.6배), “지역사회 비조직화”(3.4배)는 알코올 또는 기타불법약물과 마찬가지로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영역의 모든 보호요인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교 영역

학교 영역에서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첫째로 알코올과에 대한 영향력은 모든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영역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알코올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학

교영역의 보호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둘째로 기타불법 약물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영역의 모든 위험요인, 즉 “학교결석(7.6배)”,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음(5.9배)”, “학업실패(5.4배)요인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요인에서는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를 보호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기타불법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보호요인은 비행행동이나 알코올 및 기타불법약물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불법약물과의 관련성과 마찬가지로 “학교결석 요인(8.5%)”,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음” 요인(3.2%), “학업실패” 요인(4.8%)이 비행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결석, 학업실패,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요인을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약 8.5배에서 3.2

〈표 8〉 학교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odd ratio)

학교영역	지난 한달동안의 약물사용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
<b>위험요인</b>			
학업 실패	1.821	5.400*	4.809**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음	1.630	5.985*	3.264*
학교결석	2.871	7.620*	8.587**
<b>보호요인</b>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	1.466	2.829*	.518
집회 및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	1.640	1.914	.982

\* $p < .05$  \*\* $p < .01$  \*\*\* $p < .001$

배까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영역에서의 모든 보호요인은 비행사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나 “집회 및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을 보호요인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낮추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3) 가족 영역

가족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의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표 9>.

첫째로 알코올과 가족영역의 위험요인의 경우, “빈약한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제외된 나머지 모든 위험요인과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 요인, “반사회적 행동의 경력”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요인과 비행행동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요인을 위험요인으

〈표 9〉 가족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odd ratio)

가족영역	지난 한달동안의 약물사용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
<b>위험요인</b>			
빈약한 가정	1.474	5.178*	4.00**
빈약한 훈련	1.886*	2.511*	1.999
갈등	2.119*	3.168*	2.563*
반사회적 행동의 경력	9.318*	5.518*	8.200***
약물사용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	12.905*	14.991*	18.044***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	5.757*	13.677*	18.122***
<b>보호요인</b>			
친사회적 활동의 기회	1.814*	2.251*	.380
가족 애착	1.578*	2.299*	.585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상	1.625	1.582*	.467

\* $p < .05$  \*\* $p < .01$  \*\*\* $p < .001$

로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알코올을 사용할 가능성이 5.7배에서 12.9배까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호요인의 경우는 “친사회적 활동의 기회(1.8배)”, “가족애착(1.5배)”의 보호요인은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기타불법약물에 대한 가족영역의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영역의 모든 위험요인은 기타불법약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영역의 모든 위험요인은 기타불법약물 사용의 위험성을 최고 14배에서 최저 2.5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요인의 경우는 가족영역의 모든 보호요인과 기타불법약물과의 관련성은 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친사회적 활동의 기회”, “가족 애착”,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의 보호요인이 기타불법약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셋째로 비행행동에 대한 가족영역의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빈약한 훈련”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험요인이 비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위험요인들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기타불법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2.5배에서 18배까지 높다.

한편 보호요인의 경우는 가족영역의 모든 보호요인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개인 및 동료 영역

마지막으로 개인 및 동료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의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표 10>.

먼저 알코올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의 시작이

빠름”과 “충동성”을 제외한 모든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은 알코올 사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약물사용의 시작이 빠름”요인이 알코올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알코올을 사용할 가능성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기타불법약물과 비행행동 경우, “반사회적 행동의 시작이 빠름”을 제외한 모든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의 영향력이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른 3개 영역에서의 영향력 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사회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요인은 기타불법약물의 사용 또는 비행행동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요인을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기타불법약물의 사용이나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각기 19.4배, 17.7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호요인의 경우, “사회적 기술”과 “도덕 질서에 대한 신념”을 보호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기타불법약물의 비사용이나 비행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4배에서 12배까지 높았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재미 한인 청소년들의 비행행동과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비행행동 및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을 밝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고자 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비행이나 약물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가치 있는 정보

(표 10) 개인 및 동료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odd ratio)

개인 및 동료 영역	지난 한달동안의 약물사용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
<b>위험요인</b>			
반항성	4.234*	5.475*	7.886***
약물사용의 시작이 빠름	23.464*	11.636*	12.889***
반사회적 행동의 시작이 빠름	978.870	119.151	1.45E+10
충동성	1.741	3.319*	4.219**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3.011*	5.171*	17.968***
약물사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5.288*	9.827*	11.838***
친구의 약물 사용	3.000*	5.028*	12.121***
약물사용의 위험에 대한 지각	2.287*	3.650*	19.186***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또래 보상	4.180*	7.847*	9.208***
반사회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	7.667*	19.407*	21.455***
감각추구	3.595*	8.332*	4.511**
<b>보호요인</b>			
도덕 질서에 대한 신념	4.581*	4.560*	9.105***
사회적 기술	8.333*	11.266*	12.355***

\* $p < .05$  \*\* $p < .01$  \*\*\* $p < .001$ 

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와 그것이 갖는 함의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 및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음주, 흡연 및 약물사용과 비행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나 흡연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9개의 모든 비행행동 항목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비행행동을 할 위험성이 3배에서 45배까지 높았다. 음주군, 흡연군, 약물사용군에서 가장 높은 경험율을 보이는 비행행동은 “상해행동”이었으며, 이 상해행동은 비음주군, 비흡연군, 약물비사용군에서도 가장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행행동의 경험율은 음주군, 흡연군, 약물사용군 순으로 높았으며 비행행동을 할 위험성 역시 음주군이 3배에서 14배까지 높은 것에 비해 흡연군

과 약물사용군은 8배에서 45배까지 높은 바 음주군 보다는 흡연군이나 약물사용군이 비행행동을 할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비행행동의 판별요인으로 가장 강력한 요인이 흡연이었다는 김현수(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로부터 음주보다는 흡연이나 기타불법약물과 비행행동과의 관계가 음주와 비행행동과의 관계보다 더 치명적이고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약물사용도 함께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지난 한 달간 LSD나 코카인을 비롯하여 마리화나 흡연 알코올에 이르기까지 약물의 종류에 따라 24%-56% 까지 높은 사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행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약물을 사용할 위험성이 7배에서 39배까지 높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행행동과 약물사용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선행연구(민병근·김현수, 1987; Dawkins, 1997; Kaplan & Sadock, 1998; Wiczorek, Welte, & Abel, 1990)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음주 및 약물사용의 증가는 비행행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비행행동의 증가는 음주 및 약물사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행행동 및 약물사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영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위험요인은 알코올, 기타불법약물의 사용, 또는 비행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호요인의 경우는 4개 영역에 있는 보호요인의 반 수 정도만이 알코올 및 약물비사용, 비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청소년의 경우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에 비해 알코올, 기타불법약물의 사용 및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를 보호요인 효과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약물사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영역의 보호요인을 지닌 사람이 상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행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 및 동료영역의 보호요인을 가진 사람이 상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위험요인과 알코올 및 약물사용, 또는 비행행동과의 관련성이 보호요인과 알코올 및 약물비사용, 또는 비비행행동과의 관련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인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및 비행행동 예방 프로그램에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보호요인을 증대시키는 방향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험요인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중요

할 것 같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비행행동 예방 프로그램에서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에서 공통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위험요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약물사용의 규준에 대한 호의성”, “약물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지각”, “지역사회 비조직화”이었다. 이로부터 한인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엄격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서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 음주 및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 또는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역사회 비조직화”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지각하지 않으면 비행행동이나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은 비행행동이나 약물사용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교영역의 모든 위험요인은 알코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기타불법약물 및 비행행동과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서의 실패나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것, 또는 학교 결석 등은 기타불법약물의 사용이나 비행행동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Braggio & Pishkin, 1999; Eggert & Herting, 1993; Weinberg, 2001). 그러나 알코올의 경우, 이러한 학교요인이 알코올 사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3가지 영역의 위험요인에서도 기타불법약물이나 비행행동보다는 관련된 위험요인의 개수가 더 적은 것으로 보아 기타불법약물사용이나 비행행동보다는 더 일반적이고 흔하게 일어

날 수 있는 경험인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가족영역의 위험요인 중 ‘빈약한 훈련’을 제외한 모든 위험요인은 알코올, 기타불법약물, 그리고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요인들이 알코올 및 약물사용, 약물사용 모두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으로 이들 각각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Hawkins 등(1988), Hirschi(1984), Vingilis & Adlaf (1990)의 연구에서 지지하듯 약물사용과 비행행동을 야기 시키는 중독형의 과정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4가지 영역 중 비행행동 및 약물사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요인은 개인 및 동료영역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동료영역의 ‘반사회적 행동의 시작이 빠름’ “요인을 제외한 모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음주, 약물 및 비행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듯 이들 모두의 공통적인 유발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반사회적 또래와의 상호작용”, “약물사용 시작이 빠름” 요인은 약물사용 및 비행행동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반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약물사용 또는 반사회적 행동의 시작이 빠름 요인들은 비행행동이나 약물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이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이다(Necomb & Felix-Ortiz, 1992; Webb, Baer, McLaughlin, Mckelvey, & Caid, 1992). 이를 토대로 해볼 때 비행이나 약물사용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감소시켜 비행행동이나 약물사용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기술’ 보호요인은 다른 영역의 보호요인에 비해 알코올이나 기타불법약물, 비행행동을 중재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에서 이 요인을 증

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 한다면 중재 또는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4개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위험요인들이 비행행동과 약물사용과 공통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었는데, 특히 개인 및 동료영역의 모든 위험요인들은 알코올 및 약물사용, 비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통적으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용을 주안점으로 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약물남용과 비행행동 각각의 예방을 병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알코올, 약물사용, 비행행동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 영역의 위험요인은 “약물사용의 규준에 대한 호의성”,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인 호의성”, “지역사회 비조직화”, “약물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었다. 학교영역에서는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은 없었으며, 가족영역에서는 “갈등”, “반사회적 행동의 경력”, “약물사용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 개인 및 동료영역에서는 앞서 기술한 대로 모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알코올, 약물사용, 비행행동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공통요인이었다(알코올과 충동성의 관계만 제외).

반면에 학교영역에서는 보호요인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는 기타불법약물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가족영역 역시 보호요인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상”은 기타불법약물에만 영향을 주었고 나머지 알코올과 비행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개인 및 동료영역에서 “충동성”은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기타불법약물과 비행행동에는 영향을 주었다.

요약하면 거의 대부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알코올, 약물사용, 비행행동 모두와 관련이 있

는 중복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은 예방 프로그램에서 알코올 및 약물사용이나 비행 행동 모두에 대한 예방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물사용에만 관련된 요인(가족 영역의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상”), 학교영역의 위험요인들 같이 비행행동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표본과 대표성의 문제이다. 표집된 사례가 301명으로 안정된 분석의 충분한 표집의 크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단지 4개 주의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교를 중퇴했거나 입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표집과정에서 특정한 종교와 교육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학생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행집단과 비비행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면 연구의 질과 의의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연구방식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응자들이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과장 또는 과소하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우며, 정보를 기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편향(self-section bias)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검사 도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측정자체는 미국인 중심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한인 학생이라는 할지라도 한국인 고유한 변인을 측정

포함하였다더라면 약물남용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섯째, 비행행동에 있어서 가족의 보호요인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 한인 가정의 특성이라고 보기보다는 통제하지 못한 다른 변인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학년,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결혼 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더라면 그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의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볼 수도 있었다고 사료되나 그렇게 하기에는 표본이 크지 않아 이러한 정보가 제시되지 못한 제한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김현수(1998). 청소년 비행행동의 판별요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37(3), 483-492.
-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 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청소년 정책실.
-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 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청소년 정책실.
- 민병근 · 김현수(1987). 청소년기의 약물남용. **신경정신의학**, 26, 606-613
- 이기정(2000). 약물남용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청소년학회(1997). **약물남용청소년 예방활동 연구집**. 서울 : 문화체육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 Anglin, M., & Speckart. G. (1988). Narcotics use and crime : A multisample, multimethod analysis. **Criminology**, 26, 197-233.
- Borowsky I. W., Hogan M., & Ireland M. (1997). Adolescent sexual aggression : risk and protectors. **Pediatrics**, 100, 71-78.
- Borowsky I. W., Ireland M., & Resnick. M. D.(2001). Adolescent suicide attempts : Risks and protectors.

- Pediatrics*, 107, 485-493.
- Botvin, G. J., Baker, E., Dusenbury, L. D., Botvin, E. M., & Diaz, T. (1995). Long-term followup results of a randomized drug abuse prevention trial in a white middle class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3(14), 1106-1112.
- Braggio, J. T., & Pishkin, V. (1993). Academic achievement in substance-abusing and conduct-disordered adolescents. *Clinical Psychology*, 49(2), 282-291.
- Brener, N. D., Simon, T. R., Krug, E. G., & Lowry, R. (1999). Recent trends in violence-related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2, 440-446.
- Catalano, R. F. (2001, August). *Understanding community risk and protective factors*. Second National Conference on Drug Abuse Prevention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Washington, DC :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1997). *Selected findings in prevention : A decade of results from the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Division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Evaluation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Dawkins (1997). Drug use and violent crime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32(126), 395-405.
- Dembo, R., Williams, L., Wothke, W., Schmeider, J., Cetreu, A., Berry, E., & Wish, E. D. (1992). The generality of deviance : repl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among high risk youth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 Donaldson, S. I., Graham, J. W., Hasen, W. B. (1994). Testing the generalizability of intervening mechanism theories :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for potential high school dropouts and drug abus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5(7), 773-801.
- Eggert, L. L., & Herting, J. R. (1993). Drug involvement among potential dropout and "typical" youth. *Journal of Drug Education*, 23, 31-55.
- Evans, C. J., Novak, M. A., & Daltro, M. A. (2002, June). *Substance use, delinquent behavior, &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students in the state of Missouri : 2002*(prepared for the state of Missouri, Division of Alcohol and Drug Abuse).
- Ellickson, P. L., Saner, H., & McGuigan, K. A.(1997). Profiles of violent youth : Substance abuse and other concurrent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985-991.
- Goldstein, P. J. (1985). The drugs-violence nexus : Atripartite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Drug Issue*, 15, 493-506.
- Gray, L. E., & Booker, C. B. (1992). Empowering African Americans to achieve academic success. *NASSP Bulletin*, 76, 50-55.
- Grunbaum, J. A., Basen-Engquist, K., & Pandey, D. (1998). Association between violent behaviors and substance use among Mexican-American and non-Hispanic whit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3, 153-159.
- Hawkins, J. D., Arthur, M. W., & Catalano, R. F. (1997). *Six state consortium for prevention needs assessment studies : Alcohol and other drugs* (final report for the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Seattle, WA : University of Washington,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 Hawkins, J. D., Catalano, R. F., & Lishner, D. M. (1988). Delinquency and drug use : Implications for social service. *Social Service Review*, 62, 258-284.
-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1), 64-105.



- Hirschi (1984). A brief commentary on Akers' delinquent behavior, drugs and alcohol what is the relationship? *Today's Delinquent* 3, 49-52.
- Kandel, D. B., Yamaguchi, R. F., & Chen, K. (1992). Stages of progression in drug involvement results on adolescence to adulthood : Further evidence for the gateway theor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3, 447-457.
- Kaplan H. I., Henrichs T. F., Reid, J. C., & Huff, C. (1982). Depression in diagnostic subtypes of delinquent boys. *Adolescence*, 17, 943-949.
- Kaplan, H. I., & Sadock, B. J. (1998). Synopsis of Psychiatry : Adolescent substance abuse. 8th ed. Baltimore, Williams & Wiljins, pp.1257-1260.
- Lester, D. (1999). Suicidality and risk taking behaviors : an ecological study of youth behaviors in 29 states. *Perception and Moter Skill*, 88(3).
- Morbidity & Mortality Weekly Report (MMWR). (1998). *Surveillance Summaries*, 47, SS-3. Atlanta, GA : Center for Disease Control, Office of Communications.
- Newcomb, M. D., & Felix-Ortiz, M.(1992). Multiple protective and risk factors for drug use and abuse :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80-296.
- Saner, H., & Ellickson, P. (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9(2), 94-103.
- Service Administration, Office of Applied Studies. Wide Web at [http : //www.samhsa.gov/oas/nhsda.htm](http://www.samhsa.gov/oas/nhsda.htm)
- Vinglilis, E., & Adalf, E. (1990). The structure of problem behavior among Ontario high school students : a confirmatory-factor analysis. *Health Education Research*, 5, 151-160.
- Webb, J. A., Baer, P. E., McLaughlin, R. J., Mckelvey, R. S., & Caid, C. D. (1991). Risk factors and their relation to initiation of alcohol use among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0, 563-568.
- Weinberg, N. (2001).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abus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4(4), 343.
- White, H. R. (1882). Early problem behavior and later drug problem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 Wieczorek, W. F., Walter, J. W., & Abel, E. L. (1990). Alcohol, drugs and murder : A study of convicted homicide offend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8, 217-227.
- Wright, D. (2002). *State Estimates of Substance Use from the 2000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Drug Abuse : Volume I. Findings*(DHHS Publication No. SMA 02-3731, NHSDA Series H-15). Rockville, MD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2007년 8월 30일 투고 : 2007년 11월 20일 채택